

함께 혁신, 함께 성공, 새로운 전북 전북연구원 보도자료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문의 :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이주연 연구위원
(063-280-7193)
- 담당자: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 임지원 전문인력
(063-280-7209)

보도시점 : 2022년 8월 26일(금)부터

‘2022 전북지역 성주류화네트워크 구축 포럼’ 개최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· 익산시 공동 주관 성주류화제도 실행 주체 역량 강화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익산시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

[사진 및 영상자료 : 사진 자료 있음]

- 여성가족부 지정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(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)는 「2022 전북지역 성주류화네트워크 구축 포럼」을 8월 25일(목) 오후 2시 익산예술의전당에서 익산시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했다.
- 본 포럼은 성주류화제도의 실행 주체 역량 강화(성인지력 · 성평등의식 제고 등)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성평등한 지역사회 환경조성과 실질적인 성주류화 실현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총 4회 중 첫 번째다.
- 이번 포럼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, 익산시의 성인지예산 현황 분석을 통한 성인지예산 성과 향상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해 시의원, 공무원, 지역 여성계가 함께 모여 논의하였다.

- 성인지정책연구소 조혜경 모든 대표는 ‘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’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타 지역의 성인지예산 우수 운영 사례와 예·결산 현황분석을 토대로 익산시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제안했다.
- 이어 토론회에서는 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, 김순덕 의원, 이중선 의원과 전북가족복지문화원 염숙희 대표가 앞서 발표한 주제에 대한 익산시의 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.
- 강경숙 의원은 “성인지예산제도가 성평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
- 김순덕 의원은 “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과 정책을 둘러싼 모든 관련자 대상 성인지 교육 활성화 및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성주류화 정책 추진을 위한 실행 주체들의 다각화와 차별화된 성인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”했으며, 이중선 의원은 “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과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해 독립된 관련 조례 제정과 ‘성인지예산평가위원회’ 설치 및 집행부와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형성 등 익산시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”고 주장했다.
- 염숙희 대표는 “전문적인 성주류화 실행주체의 영입과 성평등 수준을 평가·분석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 개최의 필요성”을 강조했다.
- ‘전북지역 성주류화네트워크 구축 포럼’은 제1차 포럼에 이어 향후 10월 말까지 고창(9월 23일), 남원(10월 6일), 순창(10월 20일)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

[사진 및 영상자료]

